



**전주비전대-원광보건대, 온라인 공개강좌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9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협력 강화를 위해 원광보건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MOOC의 공동 개발과 운영을 통해 교육 혁신과 성과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K-MOOC는 누구나 무료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다.

전현주 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미숙 혁신교육원장은 "두 대학이 협력해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세아베스틸, 도에 인재 육성 장학금 600만원 후원**

(주)세아베스틸의 서한석 대표 및 임원 10명이 지역인재 양성에 뜻을 모으고 장학금 600만원을 마련하여 30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후원했다.

이날 후원금 기탁식에서 서한석 대표는 "기업의 장학금 후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결국은 기업의 우수한 노동력 확보로 연결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일"이라며,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이현용 진흥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한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주)세아베스틸 대표님과 임원께 감사드리며, 기업에 필요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금 후원은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전북지역의 장학사업 현실을 전제 들은 (주)세아베스틸 서한석 대표 및 임원들이 ESG경영 실천 취지로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참여했다.

/이만호 기자



**김제제일사회복지관, 찾아가는 문화체험 나들이**

김제제일사회복지관(관장 안정환)은 지난 29일 농촌혁신복지관 사업의 일환으로 부령면과 죽산면 주민 80여 명과 함께 국화와 함께 걷는 길 인생도 더 즐겁게 라는 주제로 함평국화대전에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의 경험을 통해 마음 공존체 의식을 함양하며, 함께 즐기면서 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체험 활동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국화꽃이 만개한 가을을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되어 오랜만에 많이 웃을 수 있었다. 한동네 이웃들과 함께 오래도록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추억을 쌓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남원시, 시니어 목공예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는 지난 30일 동부노인복지관이 초록나무협동조합(대표 변창원)과 협약을 맺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과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조합의 전문 강사들이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교육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동부노인복지관(063-620-5852~4)에 문의하고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시니어 목공예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알로에겔 안구건조증 개선 효과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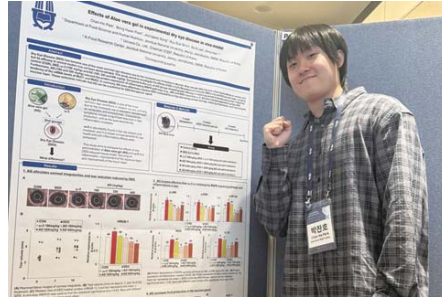
박찬호 전북대 석사과정생, 연구 성과 특허 출원... 특허 발명자 이름 올려

전북대학교 박찬호 석사과정생(생활대 식품영양학과)이 알로에겔이 안구 건조증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눈 건강이 성인 남녀가 가장 걱정하는 건강문제 1위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안구 건강 문제가 증가하면서 안구건조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식약처가 인정한 국내 안구건조 기능성 소재는 두 가지에 불과해 다양한 연구와 소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찬호 석사과정생은 그 답을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알로에 베라(Aloe vera (L.) Burm f.)에서 찾았다. 알로에 베라의 겔은 보습 효과를 통해 피부 건강 개선, 점액 분비 촉진을 통한 장 점막 건강 유지, 면역조절 및 항염 작용을 통한 면역 증진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연구는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분자대사영양화학연구소 연구책임 한인나 교수가 (주)유니베라에서 연구비를 받아 '알로에겔(Aloe vera)의 눈 건강기능 효과 가능성 및 관련 기전연구' 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전북대 공동 실험실습관 연구기자재 활용을 통해 동물실험에서 유



도된 안구건조증의 확인 및 알로에 겔 섭취에 의한 안구각막 불규칙성 개선 효과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 성과는 최근 열린 한국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알로에겔의 경우 섭취는 양성대조군인 오메가3 지방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각막불규칙성, 눈물량 분비, 각막두께, 안구조각 내 염증 관련 마커발현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 故 한상춘 상사에 화랑무공훈장 추서**

무주군이 6·25전쟁에 참전해 무공을 세운 고(故) 한상춘 상사의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지난 29일 딸 한현숙 씨에게 전달했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서 헌신 분투하며 능력을 발휘하거나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훈장 추서는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게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무주군에서는 고(故) 한상춘 상사를 포함한 2명이 받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고(故) 한상춘 상사는 1948년 4월 입대해 제1훈련소 소속으로 멸공 전선에서 싸우며 공을 세웠고 1954년 7월 제대했다.

이날 아버지 대신 훈장을 받은 한현숙 씨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받으셨다면 정말 뿌듯했으셨을 것"이라며 "아버지



안 계신 자리에서 받게 돼 마음 아픈지만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고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존경의 뜻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버님을 포함한 모든 유공자들의 희생이 없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도동동 이불세탁 서비스 '큰 호응'**

남원시 도동동(동장 소선자)은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사업을 운영, 현재까지 총 907건의 이불세탁 서비스를 연계한 취약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 발전협의회와 지진발기 수익금을 통한 세탁기, 건조기(400만원 상당), (유)도시광고(대표 김희만)의 건조기(200만원 상당), 익명의 기부자의 세탁기(200만원 상당) 기부 등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 세탁실 운영과 대한적십자사 가운누리가족봉사회,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업,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내 다수의 금융기관 지점의 세탁세탁 기부로 이불세탁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각 금융기관 지점은 남원시 축제 및 행사 등 홍보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소선자 동장 및 맞춤형복지팀은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동행정을 통해 고령의 독거노인, 가족관계 단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가정 방문해 안부확인, 복지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이불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동아이키움새싹협회 창립총회 개최**

남원시 운동아이키움새싹협회(이하 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운동부흥을 위한 김복태 회장(동일운수)의 출연금 5천만원과, 읍민들의 동참으로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금과 기부금은 운동부흥을 위한 아이 키움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기찬 운동부흥을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운동부흥을 위한 신동열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이사 7명, 감사 2명의 임원진을 최종 구성하였다. 신동열 이사장은 "오늘보다 더 나은 운동부흥을 만들기 위해 협회와 함께 열심히 뛰었으며, 읍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구심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이희승 감사 인권 교육 특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당신의 인권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가졌다.

지난 29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이희승 감사를 초빙해 인권침해의 다양한 원인과 대응방안, '인권 감수성의 개념과 사례' 등에 대해 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이희승 감사는 "오늘 교육을 통해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임직원들도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태권도진흥재단 인권경영선언문에도 나와 있듯이 서로가 존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인권경영 정착과 확산에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라며 강의를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이 지난 29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조민규 의장이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조민규 의장은 "별린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고창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이래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군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한 점을 공로로 인정 받았다.

조민규 의장은 2006년 제5대 고창군의회에 첫발을 디딘 4선 의원으로서 부의장(제4대 전반기)과 산업건설위원장(제7대 후반기, 제9대 전반기) 등 고창군의회 주요 직을 맡으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수상 소감에서 조민규 의장은 "고창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

고창군의회 차남준 부의장이 지난 29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로부터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차남준 부의장이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차남준 의원은 제9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부의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제9대 전반기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자치행정위원회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여 모범적인 삼임위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제9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고창군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다.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차남준 의원은 "이번 상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더욱 열심히 하려는 뜻으로 알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고창군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내 농협 7곳,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남원시는 지난 30일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 관내 농업협동조합 7개소가 2천만원의 장학금을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농협의 장학금은 지난해 12월 농협 남원시지부의 1천만원 장학금 기탁에 이어, 7개소 농업협동조합(남원농협, 춘향농협, 지리산농협, 운봉농협, 남원원예농협, 남원축협, 전북지리산농협)까지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한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이 지역 인재들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나눔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로서 모범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